海外資料

開發途上國에서의 國立公園과 動物保存地域의 統合問題
「아프리카」를 中心으로

編輯室

本稿는 開發途上國에서의 保存을 위한 開發 이라는 개념에 발맞추어 地方과 地域開發計劃안에 완전히 통합된 국가의 개발 정책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公園이나 保護區域을 設定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86, I.U.C.N. 發刊 Parks 誌에 게재된 내용이다.

국립공원의 실정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自然의 保存과 保護라는 다각적 側面에서 참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노력들은 多樣한 形態를 띄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國立公園과 그외 다른 動物保護地域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保護地域의 대부분은 식민지통치기간중 설정된 것으로 독립후에 설정된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動物群과 植物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지역에만 설정되었다.(그러나 보존지는 한種혹은 상당한 위험에 처한 種들을 保護하기 위해 設定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보호지역은 人間의 거주나 壓力이 거의 存在하지 않았던 지역이며 때로는 그런 지역은 사냥을 위한 場所로도 提供되었다.)

아프리카의 대륙 지도는 이들 保護地域과 낮은 人口密度와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관관계는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Gom oeand Tai공원,세네갈에 있는 Nikolo Koba공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Manova-Gounda-St Floris. 챠드의 Zakoum공원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들은 물리적, 생물학적인 조건을 갖추어 人間의 거주와 활동에 제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토의5-10%를 점유하고 독특한 자연의 거대한 복합체(범위;수천ha~백만ha에 이를 때도 있음)인 이 지역들은 일부만 利用되며 대체로 국가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주로 영어권인 나라(케냐, 南阿공화국, 탄자니아)에서는 觀光을 通하여 이들 保護地域으로부터 상당한 경제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개도국의 국가경제에 대해 전혀 공헌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공원패턴의 예외적인 모습이다.

공원의 경계나 그 인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같은 保存문제가 그들의 눈에는 이같은 조치가 그들의 습관과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하며, 광대한 地域을 "不毛地化"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은 여러壓力團體에 의해 國家的 次元에서 종종 바뀌어 진다.

문제의 요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世界人口와 함께 세계 식량공급의 만성적인 부족은 필수적으로 새로운 土地를 요구하게 되며 保存地域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책정액의 근거를 상당한 폭으로 변화시킨다.

문제는 다음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즉 사람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대부분의 生物學的 首都처럼 점진적으로 완전히 公園과 保存地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公園과 保存地의 특성과 잠재적인 이윤이 지방과 전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개발 계획에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때 다음 세 가지 주요 상황이 입증된다.

(1) 공원은 人間의 거주지 주변에 있음을 나타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활한 지역에도 위치한다.(아이보리코스트, 세네갈처럼)

(2) 지역의 中心部를 형성하는 공원은 동물이 동기간 동안 밀렵자들과 같은 일시적인 침입자에 의해 횡단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人間의 정주가 거의 결여되어 있다.(中央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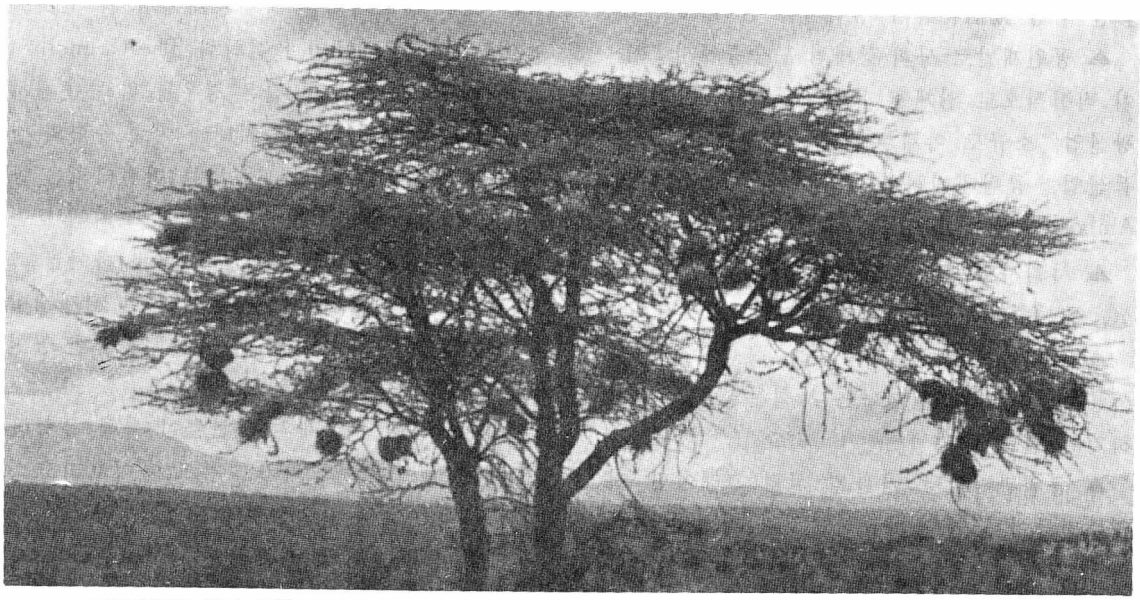
(3) 공원의 경계 인접지는 人間의 압력이 매우크며 주변농업의 이해관계는 이런 保存地의 해제를 촉구한다.(르완다)

이 세경우에 있어서 公園은 주로 일시적인 觀光客들로 부터 국가경제에 극히 미미한 공헌을 하는 "부수입"을 생산하는 곳으로 여겨 지고 있으며 벌어들인것보다 훨씬 많은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볼 수 있다.

관찰대상

이 글의 의도는 公園이 地域발달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 특히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학과 경제가 대립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통하여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협력자 임을 보여 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현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를 막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각 지역 조건에 맞는 戰略을 세우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農業과 목축 人口의 숫자적인 안정과 地理學的인 안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公園에 인접한 土地를 사용하는데 대한 지역주민들의 損害 즉 조상 전래의 유산을 잃어버림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다음 언급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전략도 적절하게 개발될



조롱박같은 위버 새집. 큰나무에는 100개가 넘는 새집들이 매달려있기도하다. (케냐) (대구매일 제공)

수 없다. 우선 토지관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천연자원 保存과 그 계획에 관한 국가정책 확립, 둘째로 그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地域開發計劃을 수립 하는데 기본이 되는 생산성 잠재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圖解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관찰과 오늘날의 모든 최신정보가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人口와 그들의 行態에 관한 사회·경제학적인 硏究.

▲ 원시 足跡잠재력에 관한 연구

▲ 방목의 에상에 따른 동식물의 생태조사연구.

▲ 현존하는 行政的, 社會的인 하부 구조의 조사연구.

이러한 조사연구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표출할 수 있다,

▲ 공원의 動·植物群에 대한 지역개발정책을 일정하게 한정.

▲ 動·植物에 대한 적절한 保存과 觀光地 開發을 위한 動植物群과 서식처를 관리.

▲ 공원개발로 사회·경제적 도움중에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입게될 유익을 분명히 밝힘(관광산업, 소규모 야채 재배업, 관광목장, 기념품산업, 공원내에서의 직접고용, 즉 케냐의 Ambosdl공원에서 처럼)

▲ 사회사업계획(학교, 건강관리소, 급수시설, 통신수단등)

▲ 토지를 관광, 사냥, 농업, 목축으로 서로 사용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사회분열을 극소화하기 위한 전략.

▲ 공원관리담당 기관을 설립(그래야만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保護하는것과 자신의 生活의 質을 높이는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한다)

▲ 공원과 야생동물을 해치는데 대해(밀렵) 싸워나가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특히 사냥, 그외 다른 생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을 인식.

▲ 地域주민을 위한 대중매체 전달과 정보계획의 수립.

▲ 대학과 硏究기관이 協力하여 天然資源관리에 있어서 科學的인 연구와 기술적인 훈련계획의 개발

▲ 자금출처의 탐색(국제적 혹은 지역적)다양한 독창력을 받아들여 모든면이 협력해 가는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강의 골격을 設立(즉 자원봉사기구의 참여와 같은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계획과 연구들이 다국적이며 "공동체"라는 원근 투시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처럼 각 公園은 국경을 가로지르며 여러나라를 망라하는 연합체계 혹은 Network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特히 W(Niger) Pendjari(Benin)과 Arly(Barkina Faso)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연합체계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연합체계는 국제관계에서 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유럽의회(The Council of Europe)같은 것이 그 같은 경우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公園이 위치한 지대가 이런 유형의 잠재능력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제의는 종종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때 고려해 보는 한계제의로 분류되긴 하지만 정부로 하여금 그 제의들을 국민생활의 하나로 다양한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런관계에서 몇개의 기관들이 특히 유럽공동체에서 中央아프리카, 챠드·아이보리코스트, 세네갈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연구와 활동에 상응하는 政策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 編輯室 : 崔〉